

영어 화제와 초점의 억양 실현 양상*

Tonal Implementation of English Topic and Focus

강 선 미** · 옥 유 림** · 김 기 호**
Sun-mi Kang · Eurom Ok · Kee-ho Kim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onal patterns of English information structure composed of topic and focus. It has been argued in previous theorie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topic-focus structure and intonation. The English topic is marked with L+H* pitch accent and focus is marked with H* pitch accent. These theories, however, are oversimplified ones since they do not consider the contextual differences of topic and focus. To examine more concrete tonal patterns of English topic and focus, we classified topic into two subcategories of reminding topic and old-information topic. Focus was categorized into three: information focus, contrastive focus, and reference focus.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native English speakers are inclined to use both the L+H* and H* pitch accent for the topic and focus of an utterance. We also observe a tendency to deaccentuate the topics given as old information and to mark the topics given as noun phrase with H* pitch accent. As for the intonation of focus, H* pitch accent is the most frequent type of accent, but L+H* also shows a high percentage of implementation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orrection or contrast.

Keywords: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 Intonation, Pitch accent

1. 서론

화제(topic)와 초점(focus) 구조를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다양하다. 화자는 청자에게 화제나 초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통사적 구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억양이나 악센트를 이용하여 발화할 수도 있다. 영어 발화에서도 화제와 초점 구조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화제와 초점이라는 정보구조가 운율적으로는 어떠한 음운 요소의 조합으로 구현되는지 영어 원어민의 실제 발화 실험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Gundel(1988)에 따르면 화제란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what the sentence is about)”이고 초점은 “화제에 대해 서술되고 있는 것(what is predicated about the topic)”이라고 정의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도 선도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Bolinger 1961; Jackendoff 1972; Steedman 2000, Gundel & Fretheim (in press)에서는 영어의 화제에서 구현되는 억양을 L+H* 피치액센트로, 초점에 구현되는 억양을 H*로 언급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A: What about FRED? What did HE eat?

B: **FRED** ate the BEANS.

L+H* H*

위의 예문에서 화자 A는 Fred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먹었나’라고 질문하고 있으며, B는 질문의 대상인 Fred가 ‘콩을 먹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 때 질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인 Fred가 이 문장의 화제로서 L+H* 피치 악센트로 실현되고, 의문사 의문문의 답에 해당되는 beans는 초점으로서 H* 피치 악센트로 실현된다는 것이 기존 이론의 주장이다.

그러나 억양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의하면 L+H* 피치 악센트는 배경정보(background information)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대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H*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미공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사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치 악센트의 의미적 해석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화제는 L+H* 피치 악센트로 구현되고, 초점은 H* 피치 악센트로 구현된다는 기존의 견해는 화제나 초점이 각 문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초점이라는 정보 구조에 포함될 때,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공유 믿음(mutual belief) 속에 입력하려는 의도로 발화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나 상대의 발화를 대조시키거나 수정하는 등 강조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제라는 정보구조에 포함되는 항목 역시,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려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를 언급하는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제와 초점 발화가 각각 L+H*와 H*로 일괄적으로 구현된다는 기존의 이론이 적합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화제와 초점이라는 정보구조가 어떠한 억양 양상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 문맥에 따른 의미 차이를 기준으로 화제와 초점을 각각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범주에 따른 억양 실현의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실험

2.1 실험 목적

본 논문은 영어 화제와 초점 구조에 나타나는 억양을 L+H* 피치 악센트와 H* 피치 악센트로 단순하게 구분해온 기존 이론이 실험적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 원어민의 실제 발화에서 화제-초점 구조가 어떠한 억양 패턴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화제와 초점이 선행 이론의 주장과 같이 각각 고유의 운율적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즉 화제는 L+H*로

실현되고 초점은 H*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로, 화제와 초점이 각각 문맥과 의미적 해석에 따라 하위 범주로 구분될 때, 범주에 따라 억양 실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2.2 실험 자료

실험 문장은 크게 화제의 억양을 살펴보는 문장 세트와 초점의 억양을 보는 문장 세트로 구성하였다. 우선 화제의 억양을 알아보는 문장 세트를 보면,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담화 문맥에 소개하는 화제와,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로서 언급되는 화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화제가 내용어인 명사로 주어질 때와 기능어인 대명사로 주어질 때 피치 악센트 유형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환기 화제-명사인 경우를 A 범주, 환기 화제-대명사인 경우를 A' 범주로 구분하였고, 구정보 화제-명사인 경우를 B 범주, 구정보 화제-대명사인 경우를 B'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이론은 화제가 주어 위치에 온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주어 위치에 화제가 온 경우와 목적어 위치에 온 경우 모두를 실험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표 1은 화제의 억양을 살펴보기 위해 주어진 실험 문장의 일부이다.

표 1. 화제의 범주에 따른 실험문장의 예

A 범주 (명사 환기 화제)	A: What about Mary? What did you say Mary did? B: Mary went to the park.
	A: What about the babies? What happened to them here? B: A van almost hit the babies here.
A' 범주 (대명사 환기 화제)	A: What about Mary? What did you say Mary did? B: She went to the park.
	A: What about the babies? What happened to them here? B: A van almost hit them here.
B 범주 (명사 구정보 화제)	A: What did the nanny do? B: The nanny bathed the children.
	A: What happened to the garden yesterday? B: My mother watered the garden yesterday.
B' 범주 (대명사 구정보 화제)	A: What did the nanny do? B: She bathed the children.
	A: What happened to the garden yesterday? B: My mother watered it yesterday.

표 1의 범주 A에서 'Mary'와 'babies'는 문맥에서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담화 문맥에 소개하는 요소로, 각각 명사로 주어진 주어 화제와 목적어 화제이다. 범주 A'에서는 'Mary'와 'babies'가 대명사로 주어진 것 외에는 모든 상황이 범주 A와 같다. 범주 B에서는 'nanny'와 'garden'이 화자의 질문에서 한 번 주어진 것으로서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이며, 범주 B'에서는 이들이 각각 'she'와 'it'이라는 대명사로 주어졌다.

다음으로 초점의 억양을 알아보는 문장 세트는, 초점의 문맥적 의미의 차이에 따라 억양 패

턴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하위범주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범주(C 범주)는 의문사 의문문의 답에 해당되는 단어가 초점을 받는 경우로서, 문맥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요소에 해당되며, Gundel & Fretheim(to appear)의 정의에 따라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이라고 구분하였다. 두 번째 범주(D 범주)는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요소와 대조를 이루거나 앞서 언급된 내용을 수정하는 요소에 초점이 오는 경우이며, 이는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이라 분류하였다. 세 번째 범주(E 범주)는 Gundel(1999)이 대조 초점의 일부로 포함시켰던 개념으로서, 문맥상에서 앞서 언급된 요소의 일부분이거나 앞선 요소에 정보를 추가하는 의미를 가진 요소를 따로 지시 초점(referential focus)이라고 분류하였다. 또한 화제 문장 세트와 마찬가지로 초점이 통사적으로 문장 내의 어느 한 부분에만 온 경우로 한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어 위치, 목적어 위치, 동사 위치에 초점을 받는 경우를 모두 실험 문장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다음 표 2는 정보 초점, 대조 초점, 지시 초점을 가진 실험 문장의 일부이다.

표 2. 초점의 범주에 따른 실험문장의 예

C 범주 정보 초점	주어	A: <u>Who</u> is babysitting your children? B: My uncle is babysitting my children.
	목적어	A: <u>What</u> did the man give to his fiancée? B: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ée.
	동사	A: <u>What</u> does Julia do with the garbage? B: She burns the garbage.
D 범주 대조 초점	주어	A: Is your <u>mother</u> babysitting your children? B: No. My uncle is babysitting my children.
	목적어	A: Did the man give an <u>emerald</u> to his fiancée? B: No.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ée.
	동사	A: Does Julia <u>gather</u> the garbage? B: No. She burns the garbage.
E 범주 지시 초점	주어	A: Is your <u>family</u> babysitting your children? B: Yes. My uncle is babysitting my children.
	목적어	A: Did the man give some <u>jewelry</u> to his fiancée? B: Sure. He gave a diamond to his fiancée.
	동사	A: Does Julia <u>get rid of</u> the garbage? B: Yes. She burns the garbage.

C, D, E 각각의 범주는 모두 동일한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맥에서, 동일한 문장이 초점의 의미적 차이에 따라 운율적으로도 차이를 보이며 실현되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험자가 초점을 받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 문장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Hedberg & Sosa(2001)는 자연발화를 통해 얻은 자료의 정보 구조를 대조 초점, 일반 초점, 대조 화제, 비승인 화제, 승인 화제로 구분하여, 초점을 두 개의 범주로, 화제를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중, 대조 화제는 주로 주어 위치에 나타난 화제가 다른 화제와 대조를 이루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주어 위치에 나타난 대조 초점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본 실험에서

는 이를 대조 초점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또한 승인 화제는 최근에 언급된 내용으로서 청자의 인식 속에 이미 존재한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화제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발화상에서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 화제와,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다시 소개하는 환기 화제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승인 화제를 구정보 화제와 환기 화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실험 문장을 구성하였다. Hedberg & Sosa의 연구에서 대조 초점으로 분류한 초점은 본 실험에서도 대조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의 구분에 따라, 초점의 세 범주는 각각 21 개(주어-7 문장, 목적어-7 문장, 동사 7- 문장)의 문장으로 총 63 문장, 화제의 두 범주는 각각 10 개(주어-5 문장, 목적어-5 문장)의 문장으로 총 40 문장을 구성하여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제시하였다.

2.3 실험 방법

2.2에서 설명한 화제와 초점의 실험 문장 103 개(초점 문장-63, 화제 문장-40)를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제시하되, 피험자가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임의의 순서로 섞어서 제시하였다. 실험은 총 6 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피험자는 K 대학교 원어민 강사 3 명, D 외국어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 2 명, S 외국어 학원 원어민 강사 1 명으로 구성하였다. 피험자들은 질문과 응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발화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어진 문맥에서 가능한 한 실제 대화 상황처럼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 문장은 각각 두 번씩 발화하여 초점 발화문장 126 문장(63×2), 화제 발화문장 80 문장(40×2)을 구하였다. 녹음은 Sony DAT(Digital Audio Tape)와 Sony ECM-MS907 마이크를 사용하여 잡음이 없는 조용한 실내에서 시행하였다. Pitch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취된 발화의 기본 주파수(F0) 곡선을 도출하였고, 이를 Pierrehumbert의 억양 음운론과 영어 ToBI 전사 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2.4 실험 결과

영어 화제와 초점 발화에서 나타난 피치 악센트의 유형과 각각의 실현 비율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문맥에 따른 범주 구분 없이 화제와 초점에 각각 나타난 모든 피치 악센트의 종류별 빈도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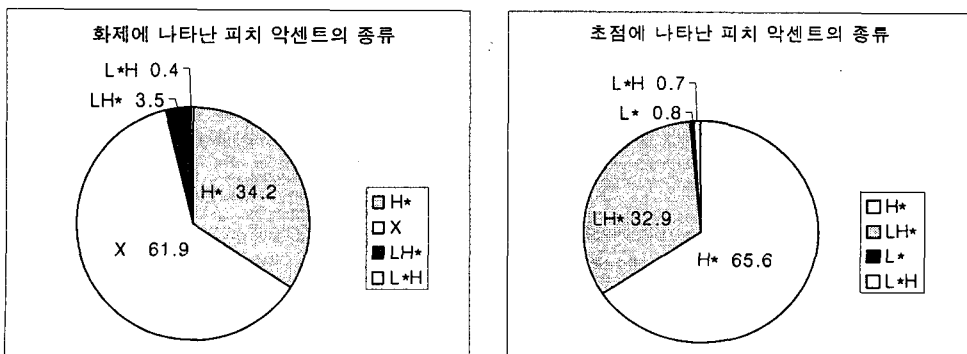


그림 1. 화제와 초점에 나타난 피치 악센트의 종류

그림 1에서 제시한 그래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화제에서 가장 많이 실현된 억양 형태는 악센트 해지(deaccentuation) 현상으로, 61.9%(총 480 개의 발화 중 297 개)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X'로 표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피치 악센트가 H*로서 34.2%로 나타났고, L+H*는 3.5%, L*+H는 0.4%로 나타났다. 한편, 초점에서는 H* 피치 악센트가 65.6%(총 756 개의 발화 중 496 개)로 가장 높은 실현 비율을 보였으며, L+H*가 32.9%, L*가 0.8%, L*+H가 0.7%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화제가 L+H* 피치 악센트로 대표되고, 초점이 H* 피치 악센트로 대표된다는 기존의 이론과 다른 결과이다.

화제의 범주별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화제를 소개하는 환기 화제의 경우와, 화자가 청자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 화제인 경우 억양 실현 양상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 그림 2에 제시한 그래프는 환기 화제가 주어와 목적어에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피치 악센트의 유형과 실현율을 나타내며, 그림 3의 그래프는 구정보 화제가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나타난 경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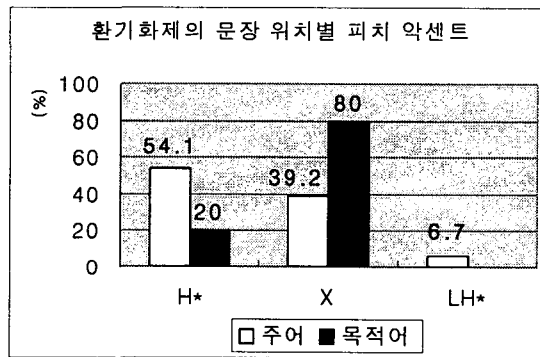


그림 2. 주어와 목적어에 주어졌던 환기 화제의 피치 악센트 실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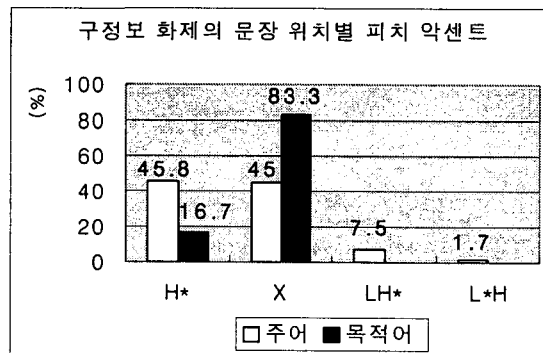


그림 3. 주어와 목적어에 주어졌던 구정보 화제의 피치 악센트 실현 비율

그림 2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보듯이, 주어-환기 화제인 경우는 H*가 54.1%, 악센트 해지 현상이 39.2%, L+H*가 6.7%의 비율을 보여 다른 억양 형태보다 H* 피치 악센트가 보다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적어-환기 화제의 경우에는 H*가 20%, 악센트 해지

현상이 80%를 보여 목적어 위치에서 뚜렷한 악센트 해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그림 3에서 구정보 화제에 실현된 피치 악센트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어-구정보 화제의 경우는 H*가 45.8%, 악센트 해지가 45%, L+H*가 7.5%, L*+H가 1.7%로 나타나, H*와 악센트 해지 현상이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적어-구정보 화제에서는 H* 16.7%, 악센트 해지 현상이 83.3%로 나타나 구정보 화제인 경우에도 환기 화제와 마찬가지로 목적어에서는 H* 피치 악센트를 주기보다 악센트를 해지시키는 강한 경향을 보였다. 즉, 환기 화제와 구정보 화제 두 범주 모두에서 화제가 주어인 경우에는 주로 H*로 발화되고, 화제가 목적어인 경우는 악센트가 해지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 화제가 명사와 대명사로 주어졌을 때 피치 악센트의 실현 비율을 살펴보자. 화제가 명사로 주어졌을 때는 환기 화제와 구정보 화제 두 범주에서 모두 H* 피치 악센트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대명사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화제의 악센트 해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음 그림 4는 환기 화제가 명사와 대명사로 주어졌을 경우 관찰된 피치 악센트의 구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그림 5의 그래프는 구정보 화제가 명사와 대명사로 제시된 경우 나타난 피치 악센트의 구현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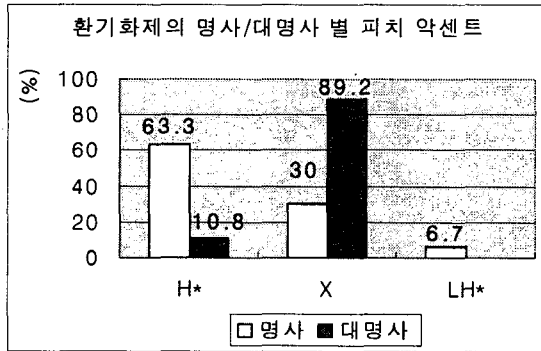


그림 4. 명사와 대명사로 주어졌을 환기 화제의 피치 악센트 실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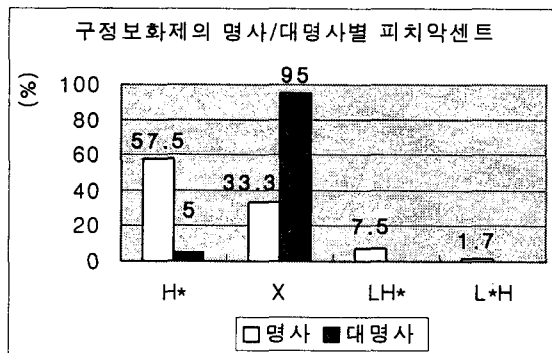


그림 5. 명사와 대명사로 주어졌을 구정보 화제 피치 악센트 실현 비율

그림 4의 그래프를 보면, 명사-환기 화제의 경우, H*가 63.3%, 악센트 해지가 30%의 실현

비율로 나타나 H*로 실현된 비율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대명사-환기 화제는 H*가 10.8%, 악센트 해지 현상이 89.2%로, 명사-환기화제에서 H*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그림 5는 구정보 화제가 각각 명사와 대명사로 주어졌을 때 나타난 피치 악센트의 유형과 그 실현 비율을 보여준다. 명사-구정보 화제에서는 H*가 57.5%, 악센트 해지가 33.3%로 실현되어 환기 화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가 가장 높은 비율로 실현되었다. 대명사-구정보 화제의 경우에는, H*로 실현된 것은 5%에 불과하며, 95%가 악센트 해지로 실현되어 명사 구정보-화제가 높은 H* 비율을 나타낸 것과 차이를 보다.

다음으로 초점의 범주별 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의문사 의문문의 답에 해당되면서 문맥상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요소인 정보 초점은 H*, L+H*, L*, L*+H*의 네 가지 피치 악센트 유형으로 구현되었고, 각각 73%, 25.8%, 0.8%, 0.4%의 실현 비율을 나타내었다. 문맥상에서 명시적으로 다른 요소와 대조를 이루거나 앞선 내용을 수정하는 요소인 대조 초점은 H*, L+H*, L* 피치 악센트로 실현되었으며 문장 내에서 각각의 실현 비율은 57.9%, 41.3%, 0.8%를 보였다. 문맥상에서 앞서 언급된 요소의 일부분이거나 앞선 요소에 정보를 추가하는 의미를 가진 지시 초점의 경우에는 H*, L+H*, L*, L* 등 네 가지 피치 악센트 유형으로 구현되었으며, 각각의 구현 비율은 65.9%, 31.7%, 0.8%, 1.6%로 나타났다. 즉, 세 범주 모두 H*와 L+H*의 두 가지 피치 악센트로 구현된 비율이 높아 각 범주를 대표하는 피치 악센트 유형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6은 초점의 범주별 피치 악센트의 구현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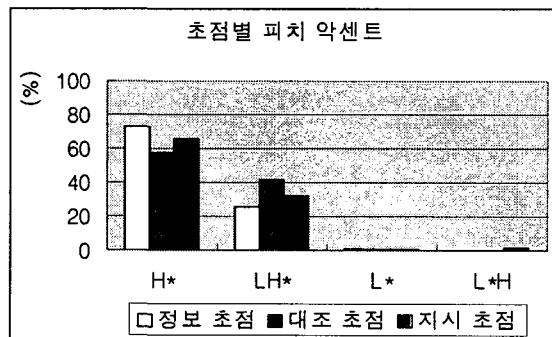


그림 6. 초점의 범주별 피치 악센트 유형과 실현 비율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초점, 대조 초점, 지시 초점 모두 H*의 실현 비율이 다른 피치 악센트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각각의 피치 악센트에서 세 가지 범주를 비교해 볼 때, 대조 초점은 특히 다른 두 범주의 초점 보다 H*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H* 피치 악센트의 실현 비율에 있어서는 정보 초점과 지시 초점에 비해 대조 초점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문장 내에서 초점의 위치를 달리 했을 때 나타난 피치 악센트의 비율은, 주어 초점의 경우 H*가 55.6%, L+H*가 44%, L*+H*가 0.4%의 비율로 실현되었으며, 목적어 초점은 H*가 67.5%, L+H*가 30.9%, L*가 0.8%, L*+H*가 0.8%로 나타났다. 또한 동사에 초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H*가 73.8%, L+H*가 23.8%, L*가 1.6%, L*+H*가 0.8%의 비율로 구현되었다.

다음은 원어민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난 억양 곡선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7~그림 10은 화제 발화에서 나타난 피치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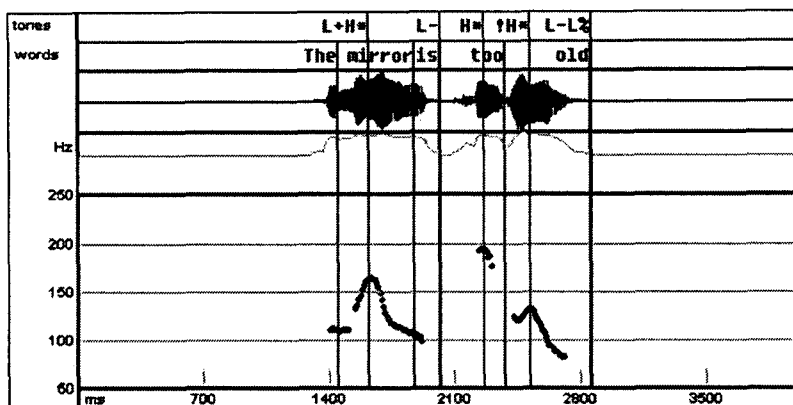


그림 7. 'The mirror is too old.'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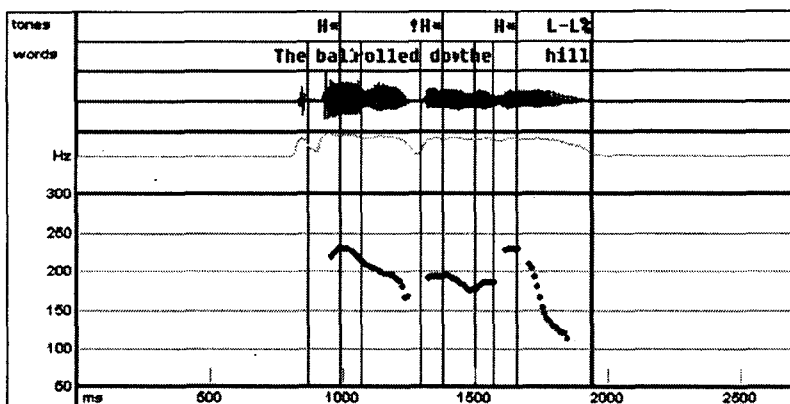


그림 8. 'The ball rolled down the hill.'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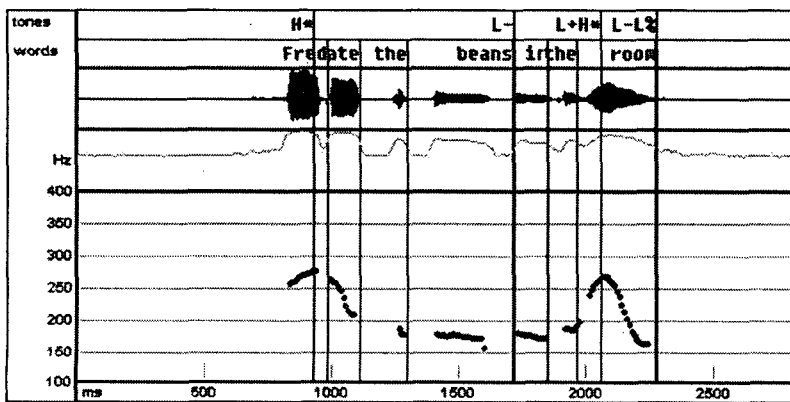


그림 9. 'Fred ate the beans in the room.'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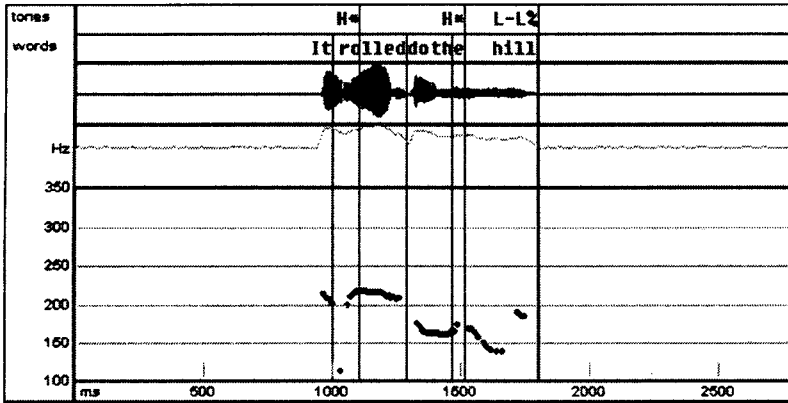


그림 10. 'It rolled down the hill.'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그림 7은 주어-명사 화제인 'mirror'에 L+H*를 부여하여 발화한 예이며, 그림 8은 주어-명사 화제 'ball'이 H*로 실현된 경우이다. 두 발화 모두 화제로 주어진 단어가 문장 내에서 위치와 성분이 같지만 위와 같이 서로 다른 피치 악센트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림 9는 목적어-명사 화제 'beans'가 악센트 해지되어 발화된 경우로, 그림 8에서 주어-명사 화제인 'ball'이 H* 피치 악센트로 구현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두 발화 모두 화제가 명사로 주어졌으나 주어 위치에 온 경우에는 H*로 실현된 반면, 목적어 위치에 온 경우에는 악센트가 해지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은 주어-대명사 화제인 'it'에 악센트 해지가 일어난 발화 곡선으로, 그림 8에서 주어-명사 화제가 H* 피치 악센트로 실현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1과 그림 12는 원어민의 초점 발화에 나타난 억양 곡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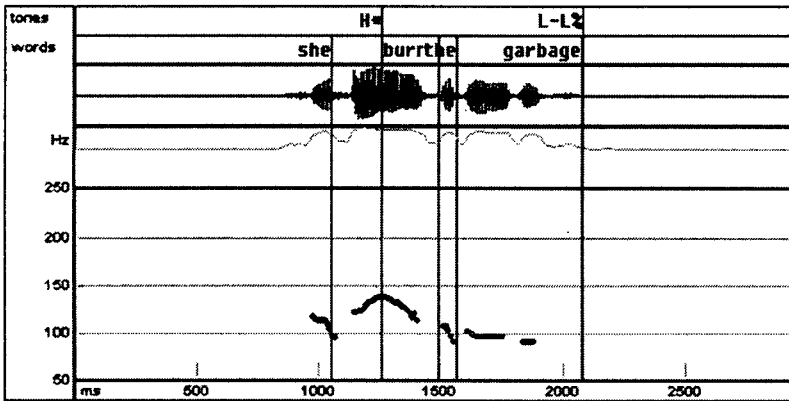


그림 11. 'She burns the garbage.'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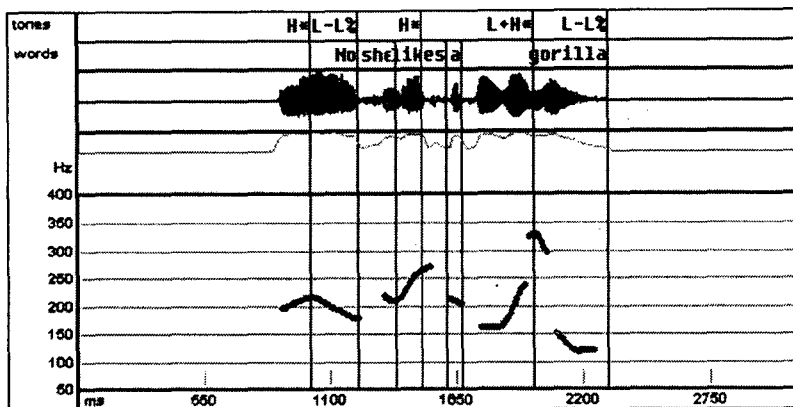


그림 12. 'She likes a gorilla.' 문장 발화에 나타난 피치 곡선

그림 11은 동사 'burns'에 초점을 받아 H* 피치 악센트로 실현된 경우이고, 그림 12는 목적어 초점인 'gorilla'가 L+H*로 실현된 예를 보여준다.

3. 논의

3.1 화제 발화에 구현된 피치 악센트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화제 발화가 반드시 L+H*로 실현되고 초점 발화가 H*로 실현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제 발화의 경우, 61.9%가 악센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H*의 실현 비율 또한 34.2%로 나타나, 3.5%를 보인 L+H*보다 높은 실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화제를 의미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하위 분류한 결과,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담화 문맥에 소개하는 환기 화제와,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로서 언급되는 화제의 피치 악센트 실현 비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와 그림 3의 그래프에서 환기 화제와 구정보 화제에 구현된 H* 피치 악센트의 구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주어-환기 화제, 목적어-환기 화제는 각각 54.1%, 20% 비율로 구현되었으나, 주어-구정보 화제와 목적어-구정보 화제의 경우에는 각각 45.8%, 16.7%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악센트 해지 현상은 주어-환기 화제와 목적어-환기 화제에서 각각 39.2%, 80%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구정보 화제인 경우 동일 위치에서 각각 45%, 83.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와 그림 5에서, 명사-환기 화제와 대명사-환기 화제일 경우 H*의 비율이 각각 63.3%, 10.8%로 나타났으나, 명사-구정보 화제와 대명사-구정보 화제인 경우에는 57.5%, 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악센트 해지 현상 역시 명사-환기 화제, 대명사-환기 화제에서는 각각 30%, 89.2%의 비율을 보였으나, 구정보 화제에서는 33.3%, 95%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는 문맥에서는 H* 피치 악센트로 구현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화자와 청자의 의미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화제를 언급하는 문맥에서는 악센트 해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H*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미 공간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 때 부여하는 피치 악센트라는 점(Pierrehumbert & Hirschberg 1990)을 생각해 볼 때, 환기 화제는 담화상에서 청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다른 가능한 화제와 일종의 대조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화자의 질문에 청자가 대답할 때에도 이를 염두에 두고 발화하기 때문에 환기 화제에서 보다 높은 H* 피치 악센트가 관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What about the beans? Who ate them?'라는 질문은 '콩은? 콩은 누가 먹었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질문을 받은 청자는 다른 것이 아닌 'beans'라는 화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따라서 이 화제에 H*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게 된다. 이에 반해 동일한 단어가 구정보 화제로 주어진 경우, 'Who ate the beans?'라는 질문은 단순히 '누가 콩을 먹었나?'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미 제시된 'beans'라는 구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악센트를 해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H* 피치 악센트가 주어 위치의 화제에서 보다 많이 구현되고 악센트 해지 현상이 목적이 위치 화제에서 높은 비율로 구현된 사실은 발화의 일반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으로 발화를 시작할 때 화자의 피치 범위의 중립 높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에 위치한 화제에 H*를 부여하기 쉬운 것으로 보이며, 발화가 진행될수록 자연스러운 하강 현상(declination)을 보이기 때문에 목적이 위치에서는 특별히 초점을 받지 않는 이상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의 이론에서 L+H*가 화제를 대표하는 억양이라 정의한 것은 대조 화제(contrastive topic)나 비승인 화제(unratified topic)¹⁾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의미적인 속성상 초점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대조 화제란 주로 주어 위치의 구성소가 다른 어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초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대조 초점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비승인 화제 역시 주어 위치의 구성소가 앞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초점의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를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정보 초점으로 포함시켰다. 본 실험에서 관찰된 이들의 L+H* 실현 비율을 보면, 주어 위치에 주어진 정보 초점은 51.2%(84 개의 발화 중 43 개), 주어 위치의 대조 초점은 66.7%(84 개의 발화 중 56 개)로 나타나, L+H* 비율이 높은 비율로 구현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L+H*가 화제를 대표하는 억양이라는 기존의 주장은 대조 초점과 정보 초점의 개념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3.2 초점 발화에 구현된 피치 악센트

다음으로 초점 발화를 살펴보자. 정보 초점, 대조 초점, 지시 초점에서 모두 H*의 실현 비

1) Lambrecht & Michaelis(1998)는 화제를 승인(ratified) 화제와 비승인(untified) 화제로 구분하였으며, Gundel(1988)은 이를 활성화(activated) 화제와 비활성(unactivated) 화제로 구분하며 활성화된 화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n entity which the speaker and addressee are not only familiar with, but are actually attending to (thinking of) at the time of utterance, i.e. something the speaker and addressee's attention is already focussed on"

Hedberg & Sosa(2002)는 '승인'의 개념이 '활성'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L+H*가 높은 실현율을 보였다. 이는 초점 발화가 H* 피치 악센트로 대표된다는 기존의 이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제 발화를 대표한다고 주장되었던 L+H* 역시 초점 발화에서 적지 않은 비율로 실현되어 H*만이 초점을 대표하는 억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초점 발화는 H*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L+H*로 실현할 수도 있으며, 특히 대조를 이루는 초점의 경우에는 L+H*로 실현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보 초점, 대조 초점, 지시 초점으로 분류한 범주가 각각 하나의 피치 악센트 패턴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각 범주를 대표하는 억양 양상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L+H* 피치 악센트의 실현 비율을 살펴보면, 정보 초점과 지시 초점의 경우보다 대조 초점의 발화에서 L+H*로 구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초점 발화에서 높은 실현 비율을 보인 두 종류의 피치 악센트 H*와 L+H*의 비율을 초점의 범주별로 비교한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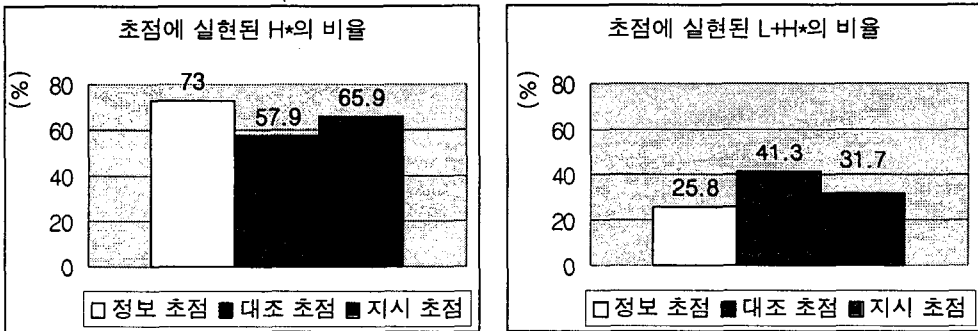


그림 13. 각 범주의 초점에 실현된 H*와 L+H*의 실현 비율

그림 13의 그래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조 초점에서는 다른 두 범주의 초점보다 H*로 발화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L+H*로 발화하는 경향은 다른 두 범주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는 L+H*가 주로 대조나 수정의 의미를 지닌 요소에 부여된다고 주장한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의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점을 받는 요소에 L+H*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여 발화하는 경우는 담화 문맥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앞선 요소를 보충할 때보다는 이미 언급된 요소와 명시적으로 대조를 이루거나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더 많이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화제와 초점으로 이루어진 영어의 정보 구조가 어떠한 억양 양상으로 구현되는지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문장의 정보 구조를 화제와 초점으로 분석할 때, 화제의 발화에서 실현되는 억양 패턴은 L+H* 피치 악센트이고 초점 발화에서 실현되는 억양 패턴은 H*

피치 악센트라는 것이 기존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원어민의 발화 실험 결과, 이러한 주장은 문맥상에서 화제와 초점이 갖는 의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담화 문맥에 새로운 화제를 소개하는 환기 화제는 기존 이론에서 주장한 L+H*보다 H*를 부여받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구정보 화제에는 악센트 해지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어 위치나 명사로 주어진 화제는 목적어 위치의 화제나 대명사 화제보다 H*로 실현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초점은 주로 H*로 구현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L+H* 역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문맥 상황이나 의미적 차이에 따라 두 가지의 피치 악센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참 고 문 헌

- Bolinger, D. 1961. Contrastive accent and contrastive stress. *Language* 37. 83-96.
- Gundel, J.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In M. Hammond et al., eds. *Syntactic Universals and Typology*. John Benjamins.
- Gundel, J. 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eter Bosch and Rob van der Sandt.(eds.), *Focus: Linguistic,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3-305.
- Gundel, J. & Fretheim, T. In press. "Topic and Focus" To appear in Laurence Horn & Gregory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 Theory*. Blackwell.
- Hedberg, N. & Sosa, J. M. 2002. The Prosody of Topic and Focus in Spontaneous English Dialogue. Topic and Focus: A Workshop on Intonation and Meaning.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Institute of Linguistics.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Lambrech, J. & Michaelis, L. 1998. "Sentence Accent in information Questions: Default and Projec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1. 477-544.
- Pierrehumbert, J. & Hirschberg, J.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In P.R. Cohen, J. Morgan, and M. E. Polla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MIT Press. 271-311.
- Steedman, M. 2000.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Syntax-Phonology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31. 649-689.

접수일자: 2003. 11. 15.

게재결정: 2003. 12. 20.

▲ 강선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dearsunny@hanmail.net

▲ 옥유름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euromok@korea.ac.kr

▲ 김기호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